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9.10.7.(수) 14:00~14:50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

2019. 10. 7.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님
한종관 서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민우 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카드사 대표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다양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이 마련되기까지
기금을 조성해주신 카드사들과
영세·중소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배경 및 주요내용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등은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우리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 숫자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해 카드업계에게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 278.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 267.6만개

그러나,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등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와 함께 많은 온라인사업자들이 PG사를 통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카드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5일이 소요되면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온라인 개인 신용카드 결제규모 실적(조원) : ('16) 51.5 ('17) 64.6 ('18) 76.5 ('19上) 45.0

이로인한 자금공백기는 담보력이 낮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핀테크를 활용한 간편결제 및 무인결제 등을 활용할 경우
편리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지만
관련 기기 보급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새로운 간편결제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카드 단말기 외에
추가적으로 신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영세·중소 가맹점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 예) 카드단말기(CAT: 약 15만원 POS: 약 40~100만원) + NFC단말기(약 15만원) + QR리더기(약 5만원) → 비용부담 ↑ (NFC단말기 보급률 1% QR리더기 보급률 0.7%)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의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그간의 포괄적인 금융지원 위주에서 전환하여
영세·중소 가맹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부 대출지원은
유동성 애로를 완화함으로써
담보력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결제 인프라 및 키오스크의 설치비용 지원은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 지원사업들은
카드사들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뜻깊게 마련된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움이 꼭 필요한 영세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이후에도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마무리 말씀

혼자가면 빠르지만, 함께가야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카드업계와 가맹점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이
당장은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이들의 희생과 성장은
카드업계에도 매출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시혜성의 행사로 그칠것이 아니라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꾸준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카드업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소·영세가맹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